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오늘 편지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스무살의 막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20살의 아빠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스무살의 자신에게 아빠가 들려줄 말에 귀기울인 겁니다. “글쎄....”라니.... 할말이 빈곤한 건 스무살의 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철도 없었지만 삶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뚜렷한 목표 없이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나의 미래를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열하게 살 수 있었을까? 냉정하고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 부터 내게 주어진 것들을 거스를 수 있을지 물음표만 떠올랐습니다. 왠지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있고 떳떳한 아빠의 모습은 아닌 듯해서 많이 미안해져서 스무살의 내게 건넬 말을 좀처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내가 거스를 수 없었던 운명같은 삶’이었을 것만 같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무살의 재웅아..., 걱정하지마.

너는 성숙하고 현명하며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될 거고, 하람이 주영이 택함이가 태어날 거야.

57살의 너,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하게 잘 자랐는지. 지금의 너는 네 아이들 때문에 가장 자랑스럽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하람이. 큰 누나, 큰 딸의 역할을 이처럼 잘하는 딸이 어디있을까. 그 이름 Jubilee 가 의미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희년이 이땅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비취길 소망하는 어엿한 숙녀로 삶을 개척해나가며 열심히 살고 있어.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받으시고 길을 내시고 딸과 동행하시는 고마운 아버지.

주영이, Joshua. 이렇게 듬직한 아들이 또 있을까. 직장을 잡았어. 고등학생의 네가 첫 아르바이트로 번 첫 월급(2주?)을 모두 드렸듯 아들도 자신의 첫 월급을 (첫 2주치는 엄마 아빠에게, 두 번째 2주치는 교회에) 모두 헌금으로 드렸다. 넌 뭘로 생활 할 거냐고 물으니 계산해 봤는데 오버타임한 걸로 가능할 거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는 모습. 더이상 어떤 감사로 주께 드려야 할지... 둘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넌 기뻐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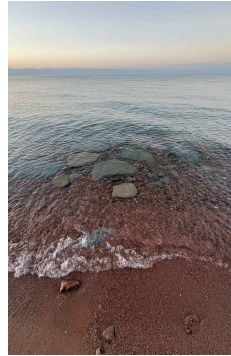
막내 택함이 Caleb은... 말해줘해. 이렇게 멋있고 스윗한 아들이 있을까. 스무살의 막내가 이런 멋진 질문을 했고 너는 거기에 답을 하고 있어. 택함이도 대학교 3학년을 마쳤고, 이번 여름 인턴쉽을 하게되었어. 담당 목사님이 택함이가 주위 사람들 목양을 너무 잘한다고 미래 목회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대네.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택함이 고등학교 시절의 일화도 떠오르고... 엄마의 위트와 지혜를 빼닮은 아들 때문에 너는 미소가 끊이지 않을 거야.

37년 후 너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한 시간들을 누리게 될거야. 그 이후의 시간 역시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묵도하는 시간이 될 거야. 아이들, 잘 자라고 있다.

재웅아, 너 수고 많았어.
고맙다.”

세상에나... 스스로에게 건넨 말이지만 고맙단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시 이 찬양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O Lord Your Tenderness,
Melting all my bitterness,
O Lord, I receive Your love.
O Lord, Your loveliness,
Changing all my ugliness,
O Lord, I receive Your love.
O Lord, I receive Your love,
O Lord, I receive Your love.



.
아내와 저의 언어가 크르그즈어이다보니 센터에 크르그즈 아이들만 찾아옵니다. 러시아인 아이들도 몇 왔다가
는 금새 포기하곤 했었죠.

올 학기 시작과 함께 찾아온 5학년 로마는 유일한 러시아인 아이입니다. 그것도 아빠가 등록하러 온 흔치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알고보니 아빠는 크르그즈 사람이고 할머니와 아빠랑만 살고 있다는 걸 보니 무슨 이유인
지 엄마는 없는 셈입니다.) 집중을 못해 학습이 유난히 어려운 아이이기도 하지만, 로마가 오는 날이면 주변
의 아이들과 소란을 피워 수업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어제 무심코 본 로마의 갈라진 혀가 생각
났습니다. 아... 이 아이가 영양이 부족한가? 슬라브 민족의 핏줄이 섞여있어서 피부가 하얀 것 만은 아니었
나? 이런 생각에 그를 위해 잠시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센터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어제 처음 눈썹
끝에 피어싱을 하고 온 A(11학년)과 (그 다음 수업에 피어싱이 없길래 물으니 그냥 스티커였다고) 그 옆 히
잡 쓴 S(11학년)를 위한 기도를 잠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듯 이 이아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때문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
올해는 80명이 넘게 등록하고 오기 시작했는데 항상 그랬듯 이런 저런 이유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나
고 있습니다. 2시 수업에 비쉬켅에서 소문 듣고 나오기 시작한 9학년 남자 아이들이 며칠 째 나오지 않아 알
리벡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네요. 우리 무료로 가르치는데 했더니, 오가는 버스비가 없
다고 합니다. 예전같으면 8숨에 한 번 갈아타서 16 숨 x 왕복 32숨이면 되었을 텐데 이젠 왕복하면 100숨
정도 될테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린 수도 비쉬켅에서 소문 듣고 오는 센터가 되었네요. 하하.

.
수업 시작하려는데 러시아어가 더 편한 리나가 더듬거리는 크르그즈 말로 오늘은 게임을 해도 되냐 물었습
니다. 지난번 친구들이랑 처음 해보는 젠가가 재미있었나 봅니다.

너희들 오늘 공부할래 놀래? 하나마나한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곤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42장
의 카드를 책상에 펼쳐놓았고 자신이 원하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하나씩 집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너

는 가치있는 사람이야”, “포기하지마”, “난 네 옆에 있어”, “네가 자랑스러워.” 각자 손에 카드를 들고 왜 그 카드를 골랐는지 누구에게서 듣고 싶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5학년에서 7학년으로 올라간 (전체 키르기스스탄 공립학교가 한 학년을 건너뛰어 올해는 6학년이 없습니다.) 여자 아이들이지만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저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이 카드를 고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마다 건드리면 눈물이 떨어지기도 할 듯한 눈으로, 옆에서 나를 지켜주던 분들이 떠나가서 슬프다고,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칭찬하고 싶다고 저마다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마음의 토양이 예수를 만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저마다 처한 문제들을 보면 우린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도대체 똥을 놔두고 굳이 교실로 들어와서 놀아야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이. 수업 시간보다 간식 시간을 더 기다리는 것 같은 아이, 환난당한 자, 빳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소외된 자, 상처를 품은 자.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꽃이 아니라 환경에서 찾으라고 했었던 어떤 사람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의 이유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환경인 거지요. “넌 혼자가 아니야”, “너는 소중한”을 뽑아들고 아이들에게 그리 말해주었습니다. 언젠가 네가 필요한 사람, 너를 필요로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속으로만 말했지만 아이들이 만날 거란 분은 예수님입니다. 카드 놀이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도 있었던 거였네요.

언젠가 우리 만나면 서로 그렇게 말해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정말로 소중하다고. 수고 많았고, 고맙다고.

<호두를 주우며>

9월의 막바지

뒷마당에 호두를 주웠다.

열매를 얻기위한 농부의 수고를 알기에
힘들이지 않고 수확하는게 미안했다.

열매를 수확하며

마을 아이들이 생각났다.

이리도 수확이 어려운 건

귀해서 그렇다.

하늘의 가장 귀한 것과

기꺼이 바꾸신 이유는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다. 9/29/26



삼남매 엄마 이야기 (58)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센터 수업시간도 정했습니다.

2학년때부터 교과서를 나눠주던 반 아이들이 올해는 9학년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전체 교과서의 절반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들입니다. 어떤 학년이든 학생들의 수준은 똑같아서 우리 반 수업 목표는 ‘구구단 외우기, 영어 알파벳 외우고 쓰기, 세자리 덧셈 뺄셈 할 수 있기’ 입니다. 매일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들이 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게 익혀야 하는지 모릅니다. 첫 한달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혼내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내버려둔 엄마들이 답답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본인들도 어쩔 수 없는 이 환경들이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르는데 학교는 왜 공부를 안 가르치고 엄마들은 왜 공부를 안 시킬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 가정방문을 하고, 사는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찾을 수 없는 학교에서는 5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없어서 1년동안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6학년이 되면 바로 6학년 교과서로 수학 진도를 나갑니다. 11년제에서 12년제로 바뀌면서 작년에 5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지금 7학년이고 작년에 6학년이었던 학생들도 지금 7학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또 가능한 곳이 여기입니다. 어쨌든 5학년때도 배운게 없고 6학년때도 배운게 없으니 다같이 7학년에 앉아 있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일 12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엄마들이, 버스타고 오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집에 와서 아이들 숙제를 돌봐 주길 기대하는 것도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즐거운 식사 시간과 마당에서 노는 시간때문에 저와의 한시간 수업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한시간 공부하고 빵을 먹는 시간이 되면 마요네즈, 버터, 잼만 주는 식사 시간이지만 빵이라도 실컷 먹고 학교에 갑니다. 오후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은 학교마치고 출출한 시간이라 일단 수업 전에 배불리 먹고 기분좋게 시작합니다. 동네 한바퀴 돌다보면 우리 센터 마당만큼 아이들이 맘놓고 뒹 공간도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래서 올 해는 마당에 비어있던 공간들도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비 중입니다. 마당에 물이 넘치는 문제나 땅을 파고 잡초를 없애는 일들이 관공서와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해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하는 저는 아직 해마다 재미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러 와 주신다면, 어디선가 이 아이들에게 와서 재미있는 캠프라도 열어주신다면, ‘애들 먹는 거 보는 거랑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것’ 이 제일 보기 좋았던 옛날 어른들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도해주세요

1. 마을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2.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속에서 좋은 배움을 얻도록
3. 필요한 영어 선생님을 보내주시길.
4. 마당으로 물이 넘어오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5. 재웅, 현순, 하람, 주영, 택함이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